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 Delfin FLNG 기본설계 완료

삼성중공업이 Black & Veatch와 함께 미국 가스 수출업체 Delfin Midstream의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기본설계(FEED)를 완료했다고 보도됨. 조만간 2.5조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사업을 수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는 3.5MTPA 규모이며 가동 시작예정일은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Beyond 126 million tpa? Qatar hints at further expansion of its giant North Field

Qatar Petroleum이 NFE(North Field Expansion)프로젝트를 추가 확장할 수도 있다고 보도됨. 회사측은 기존에 알려졌던 생산능력 목표치인 126MTPA 달성에서 멈출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됨. 카타르는 LNG수출국가인 호주나 미국과의 경쟁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Asian dry bulk markets in disarray as China shuns Australian coal

중국이 호주산 석탄에 대해 비공식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아시아 건화물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됨. 호주산 석탄을 실은 약 30척의 벌크선들이 현재 중국 내 항구에 발이 묶여 있으며 수개월째 항구 내 대기 중인 선박도 있다고 보도됨. 금지 조치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식입장 발표는 없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Panamax, Capesize 벌크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Seadrill reveals attempt to 'cleanse' finances in talks with noteholders

노르웨이의 해양시추업체 Seadrill사가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를 위해서 일부 채권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Seadrill사는 지난 2018년 Chapter11 당시 8.8억달러 규모의 NSNs(New Secured Notes)를 발행한 바 있으며, 2019년 말 기준으로 4.76억달러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도됨. (TradeWinds)

Maersk to axe 2,000 staff as profit outlook improves

AP Moller-Maersk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천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컨테이너선 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보도됨. 구조조정 단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2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실사 시작... 막판 유진기업 가세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참여한 인수적격 후보들은 지난 12일부터 예비실사에 들어갔다고 보도됨. 예비실사는 약 4주간 진행되며, 11월 초쯤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인수적격 후보에는 현대중공업-KDBI 컨소시엄을 비롯해 MBK파트너스, 글랜우드PE, 유진기업, 이스트브릿지 등 5곳이라고 보도됨. (뉴데일리)